

국제법 · 한국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김문수 후보 친일 및 망국적 역사인식 규탄 기자회견문

한민족을 위하고, 대한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후보에 김문수 웬말인가?

“친일인사 김문수는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라!”

친일 · 매국적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조차 의심됩니다. 즉시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12월3일 내란을 심판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에서 국제법과 한국사에 있어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교수님들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이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없는 친일인사 김문수 후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일제시대 때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다”며 막말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목숨 바쳐 지켜 온 분들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친일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친일을 외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감히 선택을 받겠다고 외치고 다니는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월3일 무장한 특공대들이 헬기에서 내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난입한 내란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대한민국 장관의 한사람으로서 사과 한마디 안했고 그 내란의 힘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권력까지 손아귀에 움켜쥐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일후보 김문수는 일제의 총칼에 항거한 3.1운동을 부정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

죽해서 전 가족이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도 눈을 감지 못한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선열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제가 36년동안 우리 선조들을 착취하고 고문한 것마저 합법한 일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떠나 정상적인 상식과 판단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친일인사가 12월 3일 내란행위까지 옹호한다면 제2의 윤석열이 되어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됩니다. 역사는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국민으로서 주체성을 저 버린 김문수 후보는 분명 잘못되고 왜곡된 망국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국제법), 정태현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사)
정영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한국사),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한국사)
이동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수석연구위원(국제법)